

제니스 드림허스 - 챕터 II

2020 년 초, 제니스는 모던한 우아함과 탁월한 실용성을 갖춘 데피 미드나잇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컬렉션의 출시와 함께 제니스는 “별을 향한 도전”이라는 철학을 따라 꿈을 향해 나아가며 선구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영감을 선사하는 전 세계의 여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니스 드림허스(ZENITH DREAMHERS)**입니다.

오늘, 9 월에 시작된 제니스 드림허스 캠페인의 파트너 6 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나이, 국적, 분야를 지닌 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드림허스 파트너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다른 여성에게도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셰일라 심(Sheila Sim)

성공한 모델, 유명한 배우, 성공적인 사업가, 웰빙 지지자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 싱가포르의 인기 모델이자 배우인 셰일라 심(Sheila Sim)은 수년 동안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화에 출연하고 패션쇼 무대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의 성공을 모델 경험과 유명세를 통해 터득한, 10 년 이상 고수해온 자립적인 자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졸업한 셰일라는 그녀의 벤처 사업 “원더랜드웰니스(WonderlandWellness)”를 통해 많은 이들의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멘토링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이들 또한 자신만의 별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셰일라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년간 여러 번에 걸쳐 경력을 일궈온 저는 아직도 새로운 분야와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길 고대합니다.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니까요. 저는 언제나 다음 기회의 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라 놀티마이어(Laura Noltemeyer)

디자인, 예술 그리고 패션을 향한 열정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시작된 로라 놀티마이어(Laura Noltemeyer)의 플랫폼은 빠르게 전 세계적 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젊은 독일 출신 기업가인 로라는 2014 년, 건축학 석사 논문을 작업하며 자신의 회사 및 라이프스타일 블로그(www.designdschungel.com)를 설립했으며 올해는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화장품이라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독일 제조 비건 화장품 브랜드, “BAYAGE BEAUTY”를 설립했습니다. 젊은 여성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로라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꾸밈없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내면을 믿으세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팬수혜(Kearen Pang)

팬수혜(Kearen Pang)는 연극과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홍콩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홍콩 연예예술대학교(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에서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항상 연극 및 영화 부문에 발자취를 남기기를 꿈꿔왔습니다. 자신이 맡은 다양한 역할과 빛나는 성취를 통해 그녀는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현재 그녀는 다양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공연 제작 및 영화계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맡고, 연기를 합니다. 그녀가 이뤄낸 눈부신 업적과 특유의 거침없는 성격은 그녀의 동료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용기를 선사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페데리카 세가토(Federica Segato)

이탈리아의 기업가 페데리카 세가토(Federica Segato)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업계 진입을 꿈꾸던 페데리카는 당시 어린 여성이었던 그녀의 앞길을 막은 장벽에

좌절했습니다. 그 후 2018 년, 그녀는 이탈리아의 전문직 여성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네트워크인 "커리어 리드허스(Career Leaders)"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1 년 후, 커뮤니티에는 무려 30,000 명의 여성이 모이게 되었으며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사업적인 도움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며 포브스 이탈리아의 "30 세 이하 미래의 리더 100 인"에 선정되기도 한 그녀는 이제 다른 여성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니스와 파트너십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저와 같은 미션을 공유하는 제니스의 "드림허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드림허스와 저의 회사, 커리어 리드허스는 세상 모든 여성을 위해 존재하며, 이들의 독창성과 포부를 지지합니다."*

레티시아 구아리노(Laetitia Guarino)

레티시아 구아리노(Laetitia Guarino)는 언뜻 보기에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의학과 모델, 두 분야에서 열정을 추구해온 인물입니다. 먼저 모델로서의 꿈을 이룬 그녀는 2015 년 미스 스위스로 선발되는 업적을 거두었으며, 이후 의학 교육을 완료한 후 현재 일반 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그녀는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어린이를 지원하는 스위스 자선단체 떼르 데즈롬(Terre des hommes) 및 스위스 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인도주의적인 행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여정에 대해 레티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항상 의사가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어요. 저는 열정적이고 과감한 자세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활동과 외과의로서의 경력을 통해 저는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망딘 샤그노(Amandine Chaignot)

프랑스의 유명 셰프 아망딘 샤그노(Amandine Chaignot)는 어린 시절, 가풍을 따라 약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가족들 또한 그녀가 약리학 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실제로 학업에 열중했으며, 대학 입학까지 줄곧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다른 이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나만의 꿈을 쫓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곧바로 권위 있는 페랑디(Ferrandi) 요리 학교에서 주방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 장-프랑소와 피에지(Jean-Francois Piège), 야닉 알레노(Yannick Alléno), 에릭 프레콘(Eric Fréchon) 등 수많은 유명 셰프의 밑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로즈우드 런던 호텔의 수석 셰프가 된 후 TV 쇼 마스터셰프(MasterChef)의 프랑스 버전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한 아망딘은 이후 파리에 자신의 레스토랑, 풀리쉬(Pouliche)를 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망딘은 전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장벽을 스스로 쌓아 올렸다는 것을 깨닫기 전이었죠. 그걸 깨달은 후 저는 가끔 넘어진다 해도 바로 일어나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 무엇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니다. 자신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 소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을 공부하며 목표를 이루고 자신감을 얻는 세일라 심, 연극 및 영화 분야에서 활약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팽수혜, 자신의 뷰티 브랜드를 통해 모던하고 자율적인 여성성을 추구하는 로라 놀티마이어, 다른 전도유망한 여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페데리카 세가토, 소셜 미디어와 의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를 지원하는 레티시아 구아리노, 가족의 전통을 벗어나 셰프로써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한 아망딘 샤그노 등 다양한 영감을 선사하는 드림허스의 모든 파트너는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자취를 남기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전 세계 여성을 위한 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니스: 별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라고 불리는 최초의 컴퍼니로 자리 잡았고,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와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길잡이별을 따라 혁신을 거듭하는 제니스는 뛰어난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선보입니다.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에서부터 0.01 초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장 빠른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 21, 그리고 30 개가 넘는 부품을 단일 요소로 대체하며 레귤레이팅 기구의 혁신을 이끈 인벤터까지, 제니스는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